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7호

발행일 : 2016.10 .3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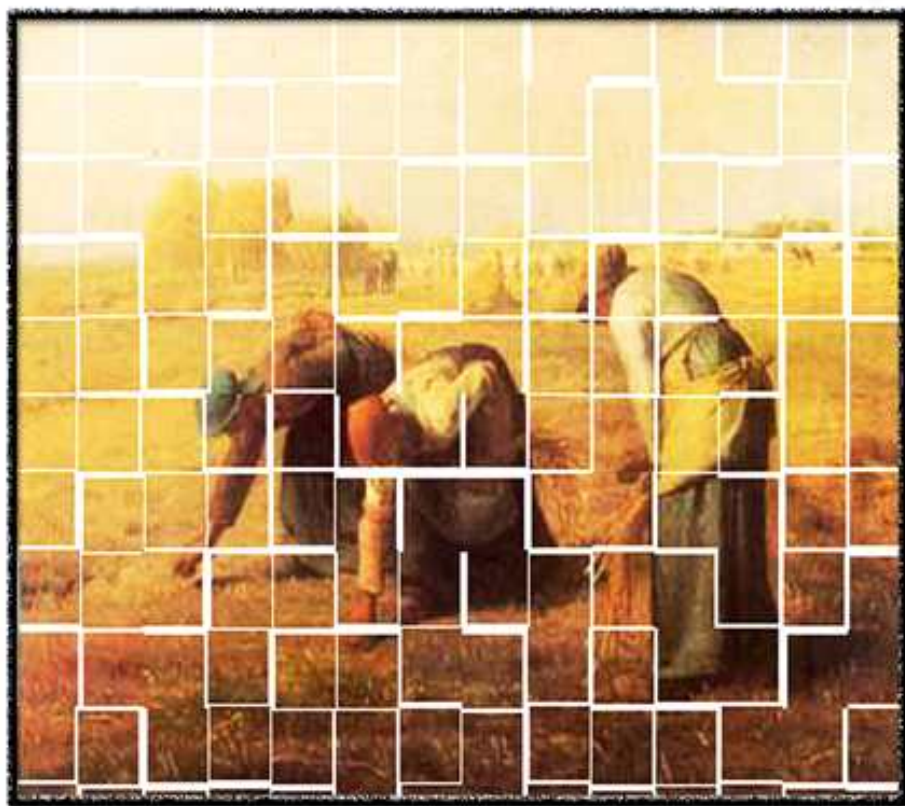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이달의 신앙 간증>

이영주 사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119:71)

지인 목사님께서 족저근막염으로 인하여 몇 달 동안 꼼짝 못하시고 지내시다 지금은 치료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걸어 다닐 수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픔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렇지요.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지요.”

라며 공감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려서부터 한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살만큼 건강했고 연탄가스 맡아 잠시 의식을 잃었던 일 외엔 잔병치레도 별로 없던 나였습니다. 아이 출산 말고는 병원에 입원도 해보지 않았기에 현대병이라는 유방암 판정에 허탈한 웃음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흔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왜 나만?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그러나 그 순간 나에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이 일로 인하여 우울해 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나도 주님께서 치료하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직감했죠.

“암이라는 이 일로 나는 즐거워 하겠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이 모토를 가지고 웃으며 가족들, 성도들, 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더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고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고 간호해주며 힘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뼈가 저릴 만큼 감사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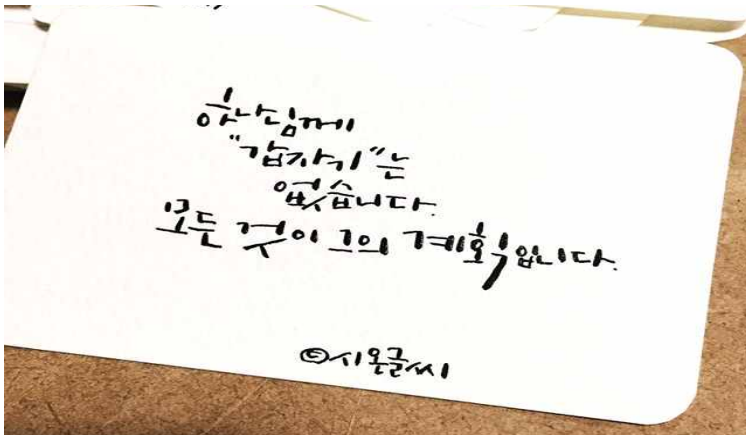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항암이라는 큰 숙제를 하지 않도록 큰 은혜도 주셨
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이 암세포 뿐 아니라 좋은 세포 까지도 다 죽여 버리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고 이것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전 이 큰일을
하지 않게 된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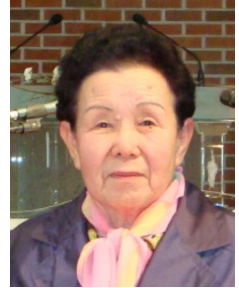
이 일을 겪으며 그전에도 아픈 이들, 고통 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했지만 서로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픔을 통해 신앙도 삶도 더
성숙해짐을 고백합니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건강 한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더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이화순 권찰-



1. 고향이 어디세요? 또 어린 시절 아가씨 시절 권찰님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고향은 서산 해미예요. 어릴 때도 말이 별로 없었고 4남 3녀 중 큰딸 맏이로 태어났는데 늘 집안일을 거들면서 자랐어요. 그 시절에도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가정은 아니어서 7남매 모두 밥 굶지 않고 얻어먹으려 다니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2. 결혼은 몇 살에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24살에 지금의 시아주버니와 친정 6촌 오빠가 같이 목수로 일했는데 그때 서로 소개를 해주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족두리 쓰고 결혼했지요.

3. 신혼시절을 말씀 해 주세요. 부군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몹시 궁금해요.

결혼 할 당시 남편이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9개월은 남편과 떨어져 살았어요. 시집에서 5년 동안 큰 형님 댁과 같이 살았는데 그 후 시아버님께서 소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분가해 살았지요.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저녁이면 아이들 먹을 것도 잘 사다주셨어요.

4. 한평생 결혼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였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남편은 특별히 저를 속상하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처음에 결혼하고 남편 없는 시댁에서 시댁식구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시어른께서 배려해주셔서 남편 제대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살다 오기도 했었지요.

5. 아이들을 키우면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데요, 늘 가슴에 응어리로 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막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는데 막내는 어릴 적 종종 아파서 걱정했죠.

돌이 넘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앓기도 하고 자다 경기도 하고 했었어요. 지금은 건강해요

6. 처음 권찰님댁 근처에 교회가 들어섰을 때 오고가는 성도님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언젠가 딸이 와서는 엄마도 교회 다니라고 말해줬어요.

7. 권찰님 자신의 성격 중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은 성질을 잘 부리지 않는 거고요, 나쁜 점은 화가 나면 큰소리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잘 참아요. 화 안내고요.

8. 평생 부부싸움은 안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기억나는 부부싸움, 한 가지만 말씀 해 주세요. 왜 싸우셨어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궁금해요.

- 안 싸우고 살았어요. 남편 직업이 경찰이었는데 야근도 잦고 비상시엔 수시로 나가고 해서 그 일로 조금 다툼 적이 있었어요.
- 그러면 남편은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9. 교회에 등록하시던 날,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냥 눈물이 막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었어요. 진작 올 걸 했지요.
10. 앞으로 15년 안에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닐 거구요, 남편 전도와 막내아들 장가가는 거요.
11. 가을이면 생각나는 사람, 또는 기억이 있으신지요?
 가을이면 막내아들 결혼 못한 것이 자꾸 걸려요. 또 한해가 넘어가는구나 싶어요.
12. 큰아드님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궁금해요
 말씀은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런데 찬양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 거요.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아들도 좋아할 거예요.
13. 남편 분께서 머리가 무척 좋으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머리 좋아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주세요.
 아버지 닮아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다 잘했어요.
 우리 막내는 자격증이 열 개나 되요 ~남편이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14. 9월의 말씀은 도전하여 너를 새롭게 하라 인데요. 권찰님은 무엇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그런거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요.
15. 요즘 기도제목이 궁금해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막내아들 결혼이요 ~
16.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잠시 감사기도를 드린다면요? ^^
 하나님 !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아이들 손주들 모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7. 팔순을 지나셨는데요. 건강하신 모습이 보기 참 좋아요. 그 비결을 알려 주세요.
 고기 안먹고, 김치 밥 좋아하고, 여기저기 잘 걸어다녀요. 손자들 오면 보건소 위까지 함께 걷고 오곤 해요. 지금껏 허리 다리 아파보지 않았어요.
18. 주님을 만나시고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인지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엄마 교회 다닌다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가고부터 손녀들도 하는 일이 잘 되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할머니가 교회 나가셔서 기도해서 잘되는 거라고요.
19. 우리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엔 찬양대회가 있고, 부활절엔 율동 대회가 있고, 맥추절엔 촌극대회가 있는데요, 그 중 어느 행사가 가장 기다려지세요? ^^
 이 나이에 율동은 어려워요. 그런데 찬양은 하겠더라고요~~

* 창립 감사예배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편 115:11~13)



목상



대표기도



오산나 찬양대



샤아 율동단



축도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9일 야외예배 *





<새가족소개>

-박봉녀 성도-

강원도 춘천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박봉녀 성도님을 이 시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송녀 집사님의 며느리이기도 한 박 성도님은 특이한 방법을 통해 남편분을 만나셨더라고요.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에서처럼



박성도님과 남편분이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만나셨고 이렇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께 많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어 의지하게 되었고 마음까지 넘겨 주게 되었나요^^ 결혼하여 처음엔 분가해 살았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요.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니 어머니는 정말 너무 검소하게 사셨고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았을텐데 쉽게 화내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많이 참고 인내해 주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십니다. 결혼 초 중흥리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곳 중흥리 교회에 한 집사님께 끈질긴 전도로 몇 번 따라 나가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 당진으로 이사 나와서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통하여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다른 교회는 잠시 모였다 금방 헤어지는 시계 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시계 바늘 추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가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많고 서로 사랑의 교제와 두터운 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 우리 목사님을 뵈을 때는 강직하시고 무뚝뚝해 보여서 내심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처음 보았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눈웃음이 멋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11월이면 기지시에 힐 스테이트에 입주합니다. 또 직장생활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모임이나 봉사에 잘 참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마음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펼쳐 나가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박봉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웃으십시오!

"장로님~~~ 차량 운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철 장로님은 정말 바쁜 일이 아니면
한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이들이든 성도들이든 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하시는 장로님을 당진순복음교회의
스마일맨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안팎에서 헌신, 봉사, 사명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맡겨진 일은 꼭
해내시죠.

언제나 환한 웃음과 반가운 인사로
큰 목소리로 유치부 아이들을 맞이하시고
한명 한명 이름을 재미있게 불러 주셔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입고오신 양복이 똥똥 먼지투성이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 눈살을 찌뿌리게도 하시지만 ^^

앞뒤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장로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건강하며 풍성한 열매로 주님 영광 나
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가을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단풍 구경하기 좋은 산 1위는?

일반인이 뽑은 단풍 구경하기 좋은 산
1위는 바로 내장산.

추우니까 움직이는거 자체가 귀찮고 힘들죠? 이러다 단풍구경 한번 못하고
눈내리는 구경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ㅋㅋ
다른 여러 산들도 운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12-

시사용어 Briefing

비혼(非婚)

◎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 미혼(未婚)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비혼(非婚)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결혼 비용 증가, 출산·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사랑’이라는 낭만보다는 ‘현실’과 ‘스트레스’로 여기며 결혼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비혼족’이 많아졌다.

게토(Ghetto)

◎ 특정 인종 및 종교집단을 외부와 격리시켜 살도록 한 거주지역

◎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떠돌던 유대인을 박해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 유대인이 생활하는 거주지에 제약을 두었는데, 이를 ‘게토’라고 한다. 게토는 이탈리아에 있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게토 누오보’라는 섬에 유대인을 가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 밖으로 나갈 때 유대인은 표식을 달고 나가야 했다.

디레버리지(Deleverage)

◎ 부채 또는 차입을 없애는 것

◎ 부채 또는 차입을 얻는 것을 말하는 ‘레버리지(Leverage)’의 반대 개념으로, 부채 또는 차입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디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가 불안하고 레버리지가 많은 상황에서 디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및 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 해저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이기주의, 기회주의를 뜻하기도 한다. 윤리적·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거나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는 것으로, 사회 및 경제적인 현상에서 두루 나타난다.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 전체에 해를 끼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것,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을 믿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추석, 추수감사절의 유래

매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다면 해외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다.

이 날은 말 그대로 준 것에 대한 감사 즉, 농경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인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다.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캐나다의 전통적 명절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많이 있고 한국의 추석 역시 시기가 좀 빠르다는 것 뿐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가는 큰 축제일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림 청교도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처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유럽 국가들은 로마제국 시대부터 구교, 즉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로마제국 및 교황청과 정치적으로도 밀착된 관계였는데 영국도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정통성을 무시한 예배 등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주의 청교도라고 불렀다.



청교도란 개신교 중에 한 종파로서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엄격한 교리, 절제된 생활, 그리고 윤리의식과 부지런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태도 때문에 이들을 퓨리탄(Puritan), 즉 청교도라 불려진 이름이다.

<이달에 issue>

지진으로 느낀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



2016년 9월 12일 저녁 뉴스 이곳저곳에서 뉴스 속 보 가 올라왔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속보였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나왔자 얼마나 크게 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일어난 지진의 규모는 5.8로 생각지도 못한 규모여서 한번, 우리나라 경주가 지진의 진원지 라고해서 또 한번 놀라며 뉴스속보를 시청했던 생각이 난다.

경주에서 지진이 나기 전 전조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유황 가스 냄새가 났고, 부산에서는 개미 때의 움직임이 하늘에서는 지진 운이 보였으며 경남 주조라 해수욕장에서는 심해어인 대형 갈치가 잡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전조증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할뿐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이들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조증상 등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타 종교와 형평 어긋나”

항소심 첫 무죄… 교계 우려 목소리 “종교 자유는 국토방위로 보장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오는데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종종 나왔지만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총무 김대덕 목사는 19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휴전 상황과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종교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 종교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7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철저한 국토방위로 보장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국토방위는 적극적인 국방 의무 참여와 이행에서 오는 것” 이라며 병역의무 준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 군복무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남기평 총무는 “종교적 양심을 떠나 여러 방식으로 군 복무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5723명이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5686명(99.4%)에 달한다.

<출처 국민일보 2016년10월19일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텍사스 주의 재판소에서 한 살인범이 사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은 그 주의 공직에 있는 동안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주 법정은 형의 공로와 그의 보증을 참작하여 그의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어렵게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 넣은 형은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조금도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형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여기서 살아 나간다면 무엇을 하겠니?”

그랬더니 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 없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나간다면 첫째로,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 죽일 것이고, 다음에는 내 재판에서 증인을 섰던 놈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형은 두말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파도

미국에 사형을 언도받은 벨마라는 여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흉악범으로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를 포함해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벨마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녀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자 자신이 그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곧 구원의 기쁨보다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벨마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근심의 원인을 알고는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벨마는 어렸을 때지만 분명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게가 파놓은 작은 구멍도 있고 사람들이 놀면서 파놓은 구멍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구멍도 생기지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 번 치면 어떤 구멍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벨마는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이 남지 않은 생이었지만 살면서 기뻐했고 또 자신이 피해를 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록 머지않아 사형을 당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벨마는 기쁨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네가 뭘데 안 믿어?

오래 전 연예인 교회에서 구봉서 장로가 신앙생활을 할 때였다.

어느 날 연예인 교회 목사가 주일 오후 연예인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성경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 사건’ 이었다.

목사님이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강조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 연예인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의문의 질문을 하자 실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때 구봉서 장로가 벌떡 일어나 상기된 얼굴로 그 연예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뭘데 안 믿어?”

성경숨은그림 찾기



성경숨은그림찾기 13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출애굽기 2장 7절)

(숨은그림: 버섯, 화분, 펜촉, 전구, 실끼운바늘)

* 책임감(Responsibility) - by. 김영단 -



책임감(Responsibility)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이다.
 Being reliable and trustworthy in all circumstances. (참은나로 성품학교 재강)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믿음 약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선교사가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읽지 않는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탁 펴서 손가락 끝이 가는 곳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만 읽어보고 “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14장9절이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리라.”

즉 현대 번역으로 하면

“지옥에 거하는 자들이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그 선교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모순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꼭 도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돕게 만드십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하실 때는 독을 마셨을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예를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 어디 한번 해 보자”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시험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피온글)

말씀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 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 존 스토틀 -

가을의 기도

박순남 권사

꽃이 핀 자리에는
열매로 답하고
사랑이 머무른 자리에는
향기가 나네요

높고 낮음 없는 곳에서 주님을 뵙니다.

사랑도 기쁨도
주님이 주셨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된다 하여도
난 기뻐하며 웃을 수 있지요

지금의 나도
앞날의 나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가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가을대심방 / 10월 31일~11월 25일
2. 집사2회 헌신예배 / 11월 6일
3. 기관 정기총회 / 11월 7일~13일
4.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 11월 20일
5. GS감담회 / 11월 24일
6. 목회탐방 / 11월 28~12월 1일

● 공지사항

1. 11월 생활실천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 축구부동계훈련 / 1월 16일~20일, 제주도 : 신청받음
3. 성지순례 / 2월 16일~24일, 이스라엘~요르단 : 신청받음

● 이달의 교우소식

1. 결혼식 / 배지혜청년(신랑:이진문) - 11월 5일 오후2시 수원
2. 새가족등록 / 박건욱, 홍미숙, 조은혜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